

더민주 지역위원장 대대적 물갈이 예고

전대 앞 조직쇄신...김종인 “오래 계신분 숙을수 있어야”

광주 낙선자 개입 금지 주장에 전현희 “호남 각별히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첫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장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유지한 인사들을 과감하게 물갈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전대에 앞서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조강특위 회의에서 이수진 전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박진경 한국여성연합 성평등연구원 소장을 특위 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며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는 특위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조강특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역위원

장 공모와 지역 실사를 거쳐 지역위원장 인선과 지역대의원 구성 등 조직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는 지역위원장은 당 대표 선출 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과감한 인적쇄신을 이뤄 혁신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회의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각 지역의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실패한 지역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인간관계가 작용해 ‘누구의 사람이니 바꿔야 한다’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너무 오래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숙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장선 조강특위 위원장 역시 “어떻게 조직을 일신하고 새로운 분들을 모실지 고민하겠다”며 “개인적 인연을 다 잊고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호남지역은 한층 더 각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돌아선 텃밭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위원장부터 참신한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일부 광주 시의원들은 광주시당위원장 등 지역위원장 인선 논의에 총선 낙선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는 차기 지방 선거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의 지역위원장 체제 유지를 통한 기

득권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혁신 드라이브와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전현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은 좀 각별하게 여러 상황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이처럼 더민주가 전대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도 수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5년부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한 사무총장제를 부활하도록 당헌·당규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과 최고위원 대신 대표위원을 두도록 한 것 역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국 문 전 대표 때의 사무총장제·최고위원제 폐지 혁신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입시제도 개혁 단순하게”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천정배 “가습기 특검 조기 도입”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16일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관련, “큰 틀에서는 변화를 최소화하되 단순화하고 다양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회의에서 “교육이 기회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복원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산업화시대의 인력을 키우는 것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교육,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다”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기업가정신 교육 등을 포함해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정배 공동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특검 조기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자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과오를 진술하게 인정하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광주시당이 주관해 1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일곡동 교통문화연구소에서 열린 '광주시민 100인 원탁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각 테이블별로 정해진 주제로 토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승용 교수 “국민의당, 선도보다 균형정당 충실해야”

광주시당 ‘총선 평가 시민 100인 원탁회의’

성공 안착 비결 ‘비전·리더십·응집력’ 제시 더민주 호남 참패 원인 ‘文 호남 방문’ 꼽아

4·13 총선에서 예상 밖 선전을 한 국민의당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비전, 리더십, 응집력이 제시됐다.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는 16일 광주 교통문화연구소에서 국민의당 광주시당이 주최한 ‘4·13 총선평가와 정권교체를 위한 광주시민 100인 원탁회의’에서 세 가지 요건을 꼽았다.

오 교수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예상 밖 지지는 실적평가 아닌 전망과 기대에 근거한 투표였다는 추정이 합

리적”이라며 “대선후보로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 역시 가상의 것(virtual thing)에 대한 선호이지 실제의 것(real thing)은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는 “20대 국회 원 구성과 개원 초기 정책입법에 따라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과 좌절로 전환될 수도 있다”며 “선도정당은 정치적 구호로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현재 국민의당 역할을 고려할 때 다소 버거운 성공비전”이라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캐스팅보터란 주도적 역할

을 하는 두 정당 사이에서 최종 선택권을 갖는다는 의미일 뿐 두 정당을 좌지우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무리한 시도가 제3당에 대한 배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캐스팅보터의 이점은 누리되 두 거대 정당의 편향과 담합을 견제하는 균형정당론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내년 2월 28일 이전 열기로 하면서 안 대표를 중심으로 당분간 당이 안정되고 전당대회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당권과 대권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리더십 안정화’를 달성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오 교수는 다만 “국민의당 의원과 조직은 선거 승리라는 필요에 따라 올라간 빈배에 불과하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지도부, 의원, 당료, 당원, 지지자가 대

선 전략의 견해차를 극복해 강한 응집력을 보여야 하고 국회 원구성 협상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호남에서 국민의당 석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오 교수는 “방문 자체는 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메시지가 문제였다”며 “호남을대론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고 했으나 ‘사실이 이러니 오해하지 말라. 그럼에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정계 은퇴할 수 있다’고 도발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분석했다.

당선자, 당직자, 재야원로, 시민사회 활동가, 직능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오 교수와 국민의당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 광복을 사무처장이 발제했다. /최권일기자 cki@

김용태 “靑 개편, 국민에 대한 답 아냐”

새누리 비대위 상건례 쓴소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이 완료되고 마른된 16일 상건례 자리에서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대면을 한 자리에는 해외 일정 중에 있는 김세연·한기호 의원을 제외한 비대위원 8명이 모두 참석했으며,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김용태 의원에 함께했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최종 단계인 전 국회(17일) 의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식 회의가 아닌 위원들끼리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라는 설명이지만, 첫날부터 메시지는 무겁고 강경했다.

홍일표 의원은 “총선에 참패를 했음에도 지난 한 달간 쇄신은 고사하고 반성도 못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이진복 의원은 “우리 당이 정말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고통 속에서 나

날을 보내는 것 같다”고. 이해훈 당선인은 “사형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각각 말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니 하는 사측생만 남아있다”면서 “뺏속까지 새누리당을 완전히 바꿔서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새누리당의 구원투수이자 새롭게 출발하는 20대 국회의 선발투수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용태 혁신위원장 내정자는 상건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청와대 일부 개편 인사에 대해 “국민에 대한 답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의 쇄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안 해결능력 부족”...3黨 지지율 하락

여야 3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9~13일 전국의 성인 2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29%포인트) 결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각각 29.8%, 27.7%, 20.1%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전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하며 이전 3주간 이어졌던 상승세를 마감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각각

0.1%포인트와 1.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11.8%로, 전주보다 2.9%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김영란법 내수 위축 우려 주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고,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당층으로 이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숙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